

대구시의회 개인사무실 강행

대구시의회가 시민 및 정치권으로부터 '호화의회'를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온 의원 개인사무실 마련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.

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위원장 박돈규)는 13일 대구시가 첫 편성한 시의원 개인사무실 공사비 3억 9천만 원, 집기구입비 1억 9천300만 원 등 의원 개인공간 마련 예산 5억 8천300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계획이다.

박돈규 예결위원장은 "당초 도입하기로 한 인턴보좌관제 예산 3억 1천700만 원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도입을 유보하기로 한 대신 의원 개인사무실 공간은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"이라며 "의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뒤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."고 밝혔다. 시의회는 이달 말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인사무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.

한편 열린우리당,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주요 시민단체들은 최근 시의회의 개인사무실 마련을 '빈방 만들기'로 규정, 반

대 입장을 분명히 해와 향후 개인사무실 추진 과정에서 시민 및 정치권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

민주노동당, 열린우리당 등은 "유급제 도입에 맞는 의정활동이 우선이며, 개인사무실 공간 마련은 시기상조"라며 "의원은 없고 명패만 남겨두게 될 시의회상이 정립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."고 밝혔다.

이종규기자 jongku@msnet.co.kr